



에덴뉴스

2018년 2月
통합 12-72호



02 에덴의 소식
에덴요양병원의
소식을 알립니다.

03 행복칼럼2018
류태희 목사가 전하는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

05 치유스토리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생생한 투병이야기

06 에덴 마당
화이팅릴레이/나도 시인
웃어보아요/칭찬합니다



NEWS 에덴의 소식

2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 획득



지난 해 9월 실시한 2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 조사의 결과가 '인증 획득'으로 나왔다. 1주기 평가인증에서 최상의 수준임을 인정 받은 전례를 그대로 지키며, 그동안에 방문한 요양병원 중에 최고라는 찬사를 받으며 2주기 평가인증도 무리 없이 획득하여 오는 2020년 12월까지 4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부여하는 평가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고압산소치료 챔버 도입

지난 1월 10일 고주파온열치료실에서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했다. 고압산소치료기는 산소부족으로 인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파괴된 면역력 복원 및 체내 산소부족을 해소하며, 떨어진 체온을 상승시켜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암치료에 적용하는 병원들이 많다. 고압산소치료기의 도입으로 암환자들의 회복을 위한 치료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직원 자녀 졸업 축하

2월 2일 병원장실에서 2018년 졸업 예정인 자녀를 둔 직원들을 초청해 소정의 상품권을 전달하며 축하를 건넸다.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인증 획득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 인증조사에서 모든 분야 평가에 최우수 성적으로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환자 안전 체계와 의료서비스 수준을 국가가 인정한 요양병원



직원동정

♠ 환영합니다 ♠

양인숙(간호부) 2월 1일 부
양영훈(관리과) 2월 1일 부

♥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아(간호부) 1월 31일 부

“러시아(구 소련)의 후회”

20세기 중엽(1970년대)까지만 해도 러시아(구 소련)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국 중에 하나로써 강대국이었다.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려서 우주항공 산업에 앞장섰으며 정치, 철학, 예술, 음악,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로서 큰 힘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부흥하던 러시아가 20세기 이후 정치, 경제적으로 몰락과 쇠퇴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과거 소련의 역사에서 그 지도자들이 잘못 선택하여 실수한 2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실수 :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 일

1867년 4월 소련의 경제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얼음의 땅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게 되었다. 얼음 두께가 평균 3m나 되며 5월이 되어야 따뜻해지는 동토의 땅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의 1/5에 해당되는 큰 땅이지만 당시에는 농사짓기에 전혀 쓸모 없는 버려진 땅으로써 러시아가 제시한 금액은 1에이커(약 1,224평)당 단돈 2센트(현재 약 24원)였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은 윌리엄 수어드였는데 미국 의회에서는 존슨 대통령과 수어드 국무장관을 소환하여 의회의 동의도 없이 쓸모 없는 땅을 사들이는 무모한 짓을 했다면서 질책을 하였다. 어떤 의원은 말하기를 “그렇게도 얼음이 필요하다면 미시시피강의 얼음을 깨다가 당신들의 집이나 채울 일이지 얼마나 얼음이 모자랐으면 아이스박스인 알래스카를 사들였냐”고 질책을 하였다. 그러나 수어드 장관은 장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당시의 거금 72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알래스카를 구입하게 되었다.

그 이후 미국은 많은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알래스카를 탐색하게 하였는데 그 불모지에서 1억 2천만달러 이상 되는 엄청난 양의 백금광이 발견되었으며 주변 해안을 포함하는 지역에는 원유가 무진장 매장되어 있고 수많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이후 매년 광업으로 4억 8천만달러, 농업으로 9백만 달러, 어업으로 1억 4천 520만 달러, 공업으로 4억 4천 920만 달러, 관광으로 3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알래스카는 미국의 군사요충지로서 또한 세계 관광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당시 수어드 장관은 미래에 대한 남다른 비전과 꿈을 갖고 알래스카 구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행복칼럼[9] 원목실장 류태희



두 번째 실수 : 성경 고대 사본인 시내 사본을 판 일

시내 사본은 1859년 시내산 기슭의 성 카테리나 수도원에 서 콘스탄틴 폰 티첸도르프에 의해 발견된 4세기 헬라이어 성서 사본이다. 티첸도르프는 발견의 기쁨을 감춘 채 그것을 복사하기 위하여 허락을 받고 러시아에 가져갔는데 결국 그것은 러시아 황제에게 선물로 헌정되었다.

그러나 볼셰비키 혁명(1917년)으로 러시아가 공산주의화 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성경을 버리게 되었다. 고귀한 시내 사본 역시 하나님을 버린 러시아에게는 무가치한 쓰레기에 불과하였다. 결국 러시아는 시내 사본을 1933년까지 레닌그라드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가 10만 파운드(현재 약 1억 5천만원)에 영국에 팔아 버렸다. 러시아인들의 눈에는 아무 쓸모 없는 쓰레기를 고가에 사가는 영국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을까?

그 이후 영국은 시내 사본을 구입한 것을 계기로 성서 공회를 조직하여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여 각 가정마다 보급하게 하였다.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고 사회가 안정되었으며 국가 번영과 질서의 기초가 된 것이 바로 각 가정에 보급된 성경을 기초로 한 삶이었다. 영국의 성서공회를 효시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성서공회가 조직되었으며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존중하는 국가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선진국의 대열에 우뚝 서게 되었다.

만일 러시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존중하여 시내 사본을 팔지 않고 성경 말씀에 입각한 국가를 경영했다면 오늘날처럼 무신론 국가로서 국가 경제가 어렵고 무기력한 나라로 쇠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통계를 볼 때 성경 말씀을 중요시 하며 그 말씀에 기초한 도덕적 신념을 가진 국가는 대부분 선진국으로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

우리가 절대로 팔거나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심이 그것이다. 하나님과 성경을 선택하여 그 말씀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국가나 사회, 가정과 개인에게 있어 큰 축복과 부흥, 행복의 비결임을 잊지 말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5)

TODAY 따뜻한 하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느 치킨집 이야기입니다.

"오늘 치킨 양념이 너무 매운 것 같네.
그리고 왜 이렇게 닭고기도 너무 튀겨서 질기고,
이걸 어떻게 돈 받고 팔 수 있나!"

그런데 이 항의는 손님의 항의가 아니라
치킨 가게 사장이 주방을 향해 말하는 항의였습니다.
주방을 향해 한참 더 뭐라고 말하던 사장은
가게 안에서 양념치킨을 먹고 있던 손님인
할아버지와 손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오늘 양념치킨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오시면 꼭 맛있는 양념치킨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게는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손자에게 양념치킨을 사주던 할아버지는 왼팔이 불편하셨고 옷차림도 매우 남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치킨을 왜 안 드시냐는 손자의 물음에 배가 부르다며 자신은 먹지 않고 한쪽 손으로
손자에게 치킨을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치킨을 먹지 못하는 손주에게 더 먹이고 싶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치킨 사장님은 일부러 주방을 향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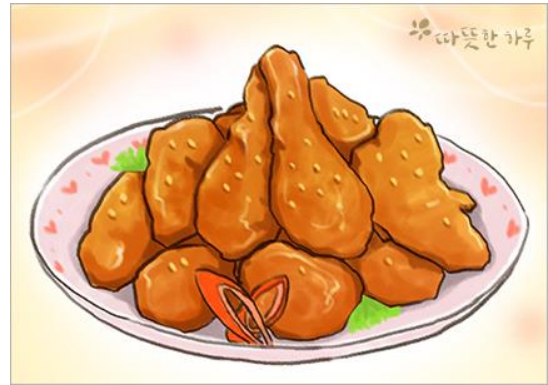
치킨집 사장님의 배려를 눈치를 챈 할아버지는 "고, 고맙구려"라는 말씀을 하고는 손주와 치킨집을 나섰습니다.

세상이 왜 이리 따뜻하고 아름다운지요.

자신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생겨도 무례하게 행동하고 갑질을 휘두르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야 하는 이런 세상에서,
나를 낮추면서 남을 배려하는 이런 일이 어딘가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심지어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출처 : 따뜻한 하루 / www.onday.or.kr

양념치킨에 담긴 배려



FOOD 몸에 좋은 제철 과일

딸기



딸기는 비타민C가 귤의 3배 가량 많이 함유되어 있어 천연비타민C의 보고로 손꼽히는 식품이다. 딸기 6,7개를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양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 딸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C는 암세포를 박멸시키는 세포의 능력을 강화시켜 항암작용을 하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힘도 가지고 있다.

또한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식이섬유인 펙틴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다. 딸기의 라이코펜은 과일의 붉은 부분에 들어 있는 색소의 일종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딸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암 예방뿐만 아니라 시력회복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의 합성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준다.



STORY 투병이야기

에덴에서 행복했던 순간 BEST 3

송은성



One. 늦봄

아름다운 봄날의 향기와 맑은 산새들 노랫소리, 귀여운 다람쥐들의 움직임이 산책길을 즐겁게 해 준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다.

박연희님이 산책길에 산토끼를 봤다며 자랑을 하셨다.

'어? 뱀이 아니라 산토끼?'

당시 난 뱀을 밟을까 봐 눈길을 온통 내 발길 끝에 집중하고 다니느라 에덴에 산토끼가 사는 지도 몰랐다. 나도 산토끼가 보고 싶었다.

산토끼를 보겠다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며 산책길을 나섰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도 지나도 산토끼는 보이지 않았다. 주변 환우들도 산토끼를 봤다는 분은 없었다. 기도했다.

'예수님! 저도 산토끼 보고 싶어요. 산토끼 보내 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도 지나고, 일주일도 더 지나도 산토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다. (삐침)

다음 날, 베란다에서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에! 산토끼대! 푸른 산능선을 따라 풀을 먹고 있는 짙푸른색 산토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얼굴에 만족스런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예수님의 재치와 장난기에 나도 모르게 크게 소리 내어 웃었다.

'언제부터 저기 있었을까? 내가 산토끼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조하셨나?'

난 산토끼를 기도한 지 2주 만에 발견했다. 하나님께선 내게 산토끼를 바로 보내주셨는데, 때론 내 영적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못 보고 슬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본다. 기도 응답이 궁금할 때마다 베란다로 가서 산토끼를 본다.

'하나님! 오늘도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엔 어디서 어떻게 기도응답 폭죽이 터뜨려질 지 기대가 돼요!'

Two. 여름

요즘(여름 날의) 에덴 동산은 풀벌레 소리가 환상적이다. 별빛도 풀벌레 환상곡에 취해 잠이 든다. 아침 벌레 소리는 새벽공기 만큼이나 신선하다.

산책길 1.5km에서 2km 사이에 특별히 풀벌레 사운드가 황홀한 구간이 있다. 아무리 바빠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지나가는 환우들을 붙잡고 잠시 감상하고 가시라 청해 본다.

걸음을 멈추고 풀벌레 소리에 귀를 쫓고 마음을 씻어 본다. 눈을 감고, 뇌파를 맞추어 본다. 풀벌레 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 발자욱에 작은 돌 구르는 소리... 모든 것이 조화로운 하나님 창조물들의 소리...

천지에 뿌려 놓은 하나님 사랑의 파동에 내 영혼의 파동을 맞추어 본다. 하늘 주파수에 접속될 때까지 내 마음과 내 생활이 하늘 주파수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해 본다.

Three. 완전한 가을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걸음을 멈추고, 눈망을 가득 고운 빛깔로 채우고 있다. 고운 산 빛에 나도 물들어버릴 듯, 한참을 그림처럼 서 있다.

에덴!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히 아름다웠던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위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셨다는 그곳.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는 그 정원. 상상조차 불가능한 그 에덴을 그려보며 눈을 감으니, 나도 그 에덴에 있고 싶어 눈물이 난다.

아무래도 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칭찬합시다~~

운동치료사님을 칭찬합니다. 항상 헬스실을 청결하게 해 주시고 빌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셔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어서 칭찬합니다.
- 107호 김영주 -

영양과 분들을 칭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많은 환우들에게 맛있는 삼시세끼 준비해 주시는 주방 모든 분들 칭찬~ 반찬이 빠진 게 있다고 하니 바로 전화하고 뭐어서 갖다 주시는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
- 519호 박현실 -

107호 김창원님을 칭찬합니다. 책을 좋아하고 공부에 많이 애써 습득한 지식을 환우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시고 환자들이 특히 보듬 받는 쪽으로 해주고 있어 칭찬합니다.
- 107호 김영역 -

301호 환우님들을 칭찬합니다. 서로 배려 속에 매일 매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301호 최경임, 박혜림 환우님을 칭찬합니다.
- 210호 안미희 -

조리사님들을 칭찬합니다. 1/17 저녁 스파게티 환상적이었습니다. 먹는 순간, 모든 병이 완치됨을 느꼈습니다.
- 107호 김갑중 -

정민지 간호사님을 칭찬합니다. 환자를 대할 때마다 상냥한 눈빛과 예쁜 미소로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정말 날개 없는 천사같아요.
- 3층병동 이영희 -

107호 김영주님을 칭찬합니다. 담도암 말기로 온 환우인데 밝고 긍정적으로 열혈만에 완전히 좋아져서 성경공부도 시작한 모범적인 환우라 칭찬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바라며 같이 기도하고 열성적이며 모범입니다.
- 107호 김갑중 -

나호림 부원장님을 칭찬합니다. 환자를 위해 한결같은 부원장님, 너무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치료에도 정성을 쏟으셨다 해 하시느니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111호 박미숙 -

에덴농장 전기선님을 칭찬합니다. 힘든 노동 중에도 어려운 환우들에게 웃음과 봉사로 기쁨을 주시는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 111호 이미희 -

윤정섭 물리치료사님을 칭찬합니다.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 111호 진정희 -

물리치료사님을 칭찬합니다. 친절을 넘어서 사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줍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이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니 감사하고 밝은 미소로 정성껏 잘 치료해 줍니다.
- 107호 김영역 -

관리과 박기창님을 칭찬합니다. 밤, 낮, 새벽을 가리지 않고 제설작업을 해 주시고 언덕에 멈춘 차를 끌 때까지 외면치 않으시고 도와 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 211호 추선희 -

관리과 직원들을 칭찬합니다. 저희가 에덴 생활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관리과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감기 몸살에도 늘 치워 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 111호 조민영 -

원무과 윤순영님을 칭찬합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화응대를 편안하게 해주셔서 환자의 마음에 위안이 많이 됩니다.
- 107호 김창원 -



김미정 간호조무사님을 칭찬합니다. 환자의 마음을 위문해 주시며 늘 가까이 있는 언니처럼 쓰다듬어 주시며, 얼굴을 보는 순간 환해지는 마음을 느낍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210호 안미희 -



FIGHTING 화이팅릴레이

간호사 최경숙

“알프스의 독수리는 때때로 폭풍우 때문에 산의 협곡 밑까지 깊이 떨어져 들어가는 수가 있다. 폭풍이 몰고 온 구름에 갇힌 이 하늘의 왕자 독수리는 어두운 구름 덩어리로 인하여 자기가 집을 지은, 해가 비치고 있는 산꼭대기로부터 차단된다. 빠져 나가려는 그의 노력은 소용이 없는 것 처럼 보인다. 그는 여기저기로 돌진하며 그 강한 날개로 허공을 치고, 울음 소리로 메아리를 일으킨다. 그러나 필경에는 승리의 부르짖음과 함께 그 새는 위로 돌진하여 구름을 꿰뚫고 다시 밝은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와서 암흑과 폭풍을 멀리 내려다본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고난과 실망과 암흑에 둘러싸일 수가 있다. 허위와 불행과 부정이 우리를 가두곤 한다. 우리가 쫓아 버릴 수 없는 구름들이 있다. 우리는 환경과 싸우지만 헛고생을 한다. 거기서 피할 길은 하나, 오직 한 길만이 존재한다. 안개와 몽롱함이 지상을 덮고 있으나, 그 구름 위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다. 믿음의 날개를 타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햇빛 가운데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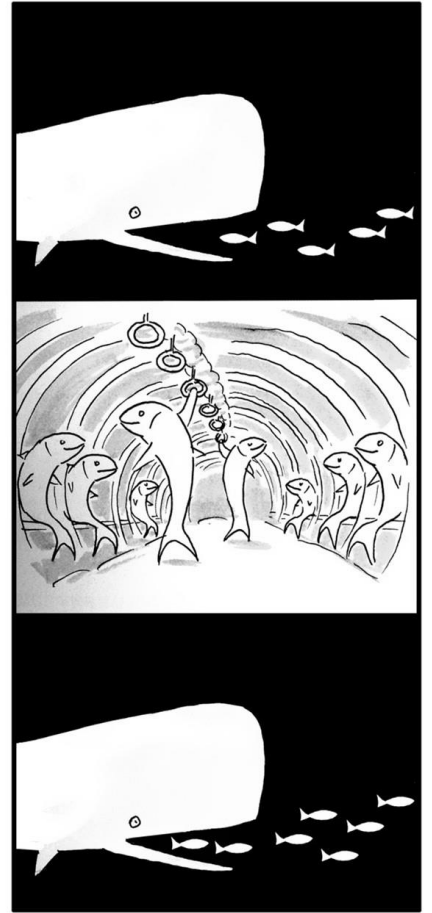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 스스로 내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에덴 가족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려고 두 팔 벌린 분을 의지하므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어둠의 터널 끝에는 빛이 있으리라 확신하며... 파이팅!!!

화이팅릴레이는 에덴직원들이 환우 여러분께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최경숙 간호사님이 지목한 다음 주자는 '원무과 백주라 계장님'입니다.

웃으며 삼시다~



TANGO @tango2010

지난 호 틀린그림찾기 정답 (총 25개)



편집후기 [꼭 해 보고 싶은 것]

살아가며 꼭 한 번은 해 보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는 너무 바빠서 못한 일들을 비록 아픔이지만 이로 인해 생긴 여유를 통해 그 소원을 이루어 가는 분들이 적 많습니다.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새해를 맞아 용기를 내서 힘차게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시작해 보면 엄두 안 나던 그 일이 딱 쉽게 이루어져 놀라는 경험도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며 도전해 보아요~ 파이팅!!

- 에덴뉴스 편집장 행복돌쇠

에덴요양병원은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홈페이지 www.edenah.com
- 블로그 blog.naver.com/edenah
- 유튜브 www.youtube.com/user/TVEdenah
- 페이스북 www.facebook.com/Edenhospital
- 트위터 twitter.com/Edenhospital

검색창

에덴요양병원 ▼

절 취 선

틀린그림찾기(8개)

이름 :

호실 :

호



♥ 틀린그림찾기 정답, 칭찬의 글을 홍보기획과로 보내주시면 매일 1분씩 추첨하여 매점상품권을 드립니다.

♥ 지난 호 당첨자

- 107호 김갑중, 111호 조민영, 211호 추선희, 519호 박현실

()님을 칭찬합니다.

- 칭찬사연을 자세히 남겨주세요

